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6.20(금) ~ 2025.6.26(목)

제공일시 2025 7 4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 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6.20(금) ~ 2025.6.26(목)

제공일시 2025 7 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글로벌 정책

1. EU 이사회, ESG 공시·실사 규정 간소화 입장 채택

- 유럽연합(EU) 이사회가 23일(현지시각)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및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의 간소화를 위한 협상 입장을 공식 채택함. 여기에는 보고·실사 의무의 적용 대상을 대폭 줄이고, 실행 시점과 계획 수립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됨
- 이사회는 CSRD의 직원 수 기준을 100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연매출 4억5000만유로(약 7100억원) 초과 요건을 추가함. 상장 중소기업은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 CSDDD는 적용 기업을 직원 수 5000명 이상, 연매출 15억유로(약 2조원) 이상으로 제한하면서 실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대폭 줄임

[\(임팩트온 2025.6.25\)](#)

2. 세르비아, 한수원과 원전·수소 기술협력 임박... SMR 분야도 논의

- 세르비아가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원자력 및 수소 에너지 분야의 지식·기술 교류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됨
- 이번 협정은 세르비아가 안정적이고 저탄소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가능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세르비아 광산에너지부 라도시 포파디치 차관은 최근 한국 울산에 위치한 KHNP의 원전 단지를 방문한 뒤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원자력을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저탄소 에너지 미래를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보고 있다”며, “수소는 미래 에너지로, 세르비아의 에너지 전략 문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기술 적용에 대한 지식 교류가 중요하다”고 밝힘

[\(프레스나인 2025.6.24\)](#)

3. 中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씩씩이’... 원료 수입 쉬워진다

- 중국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원재료 수입 규제를 완화함. 전기차 전환에 대응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함. 21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생태환경부를 비롯한 6개 부처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폐배터리 재활용을 촉진할 원료 수입 지침을 발표함
- 새 규정은 블랙파우더(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든 검은 분말 형태의 중간재)와 철강 원료를 고체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분류함. 이를 통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함

[\(더구루 2025.6.22\)](#)

국내 정책

1. 해수부, 국내 최초 항만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

-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항만에 조성되는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해 HD현대오일뱅크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힘
- 업무협약에 따라 해수부와 충청남도, 서산시는 HD현대오일뱅크의 사업 추진을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는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시설을 모아 둔 항만 시설임
- HD현대오일뱅크는 이 사업에 8천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7년 2월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2032년까지 바이오연료와 수소 생산 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임

[\(연합뉴스 2025.6.22\)](#)

2. 중기부, 모태펀드 9000억 편성… AI 기술혁신 마중물될까

-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확산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4000억원을 추가 편성하며, AI·반도체·바이오 등 '딥테크 산업'의 주도권 확보 의지를 재확인함
- 다만, AI 등 딥테크 산업은 고비용·장기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예산 편성이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주요국에 비해 투자 규모가 작고, 정부 출자가 민간투자자로 연결될 수 있지도 장담할 수 없음
- 정부의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소벤처기부는 기존 본예산을 포함해 총 9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됨
- 확보된 자금은 AI 등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 도약에 필요한 성장 지원에 활용될 예정임

[\(직설 2025.6.23\)](#)

3. 대중소기업 상생, 살살이 살펴본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현황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함.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초 데이터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임
-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기부의 위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실태조사를 맡을 연구용역 기관을 모집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중기부와 동반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수준을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임
- 동반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 현황과 애로사항, 상생 협력 인식 등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함

[\(서울경제 2025.6.24\)](#)

글로벌 기업

1. '오일 공룡' 셰브론, 리튬 전쟁 참전... 엑손모빌과 '하얀 석유' 대격돌

-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 셰브론이 석유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미 SK온과 LG화학을 고객사로 확보한 경쟁사 엑손모빌과의 정면 대결을 예고함
- 셰브론은 24일(현지시각) 아칸소주와 텍사스주에 걸쳐 있는 '스맥오버 지층(Smackover formation)'의 리튬 채굴권을 확보하며 시장 진출을 공식 발표함

[\(글로벌이코노믹 2025.6.25\)](#)

2. 중국 車 가격 경쟁에 생산 속도 조절 나선 비야디

-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로 올라선 중국 비야디가 생산 속도 조절에 나섬. 중국 내수 부진에 따른 자동차 출혈 경쟁 심화로 비야디 차량 판매량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짐
-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비야디가 최근 공장 교대 근무를 줄이고 생산라인 증설을 연기했다고 보도함
- 소식통에 따르면, 비야디는 일부 공장에서 야간 근무조를 없애고 생산량을 3분의 1까지도 줄임. 최소 4곳의 공장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함, 일부 신규 생산라인 증설 계획도 중단함

[\(이데일리 2025.6.25\)](#)

3. 日 미쓰비시상사, 美 태양광 시장에 39억달러 '통 큰 투자'

- 일본 종합상사 미쓰비시상사가 오는 2028년까지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용량을 현재보다 160%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현지시각) 니혼게이지아이신문(닛케이)이 보도함. 총 사업비는 약 39억달러(약 5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미쓰비시상사는 미국 내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활용해 공급망 현지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임

[\(글로벌이코노믹 2025.6.21\)](#)

4. 'AI 파운드리'로 변신하는 폭스콘... 美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외연 확장 시동

- 아이폰 제조사로 알려진 대만 폭스콘이 4년간 5000억달러(약 682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짐
- 폭스콘은 일본 소프트뱅크가 오픈AI와 미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AI 서버 대량 수주를 계기로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 계획임

[\(조선일보 2025.6.24\)](#)

국내 기업

1. 포스코, 아르헨티나 살타 2단계 공장 가동 계획 공유... 年 5만t 생산

-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살타주 상원에 2단계 공장 가동 계획을 공유함
- 내년 상반기 안으로 생산을 시작하고, 1단계 공장과 함께 총 연산 5만 톤(t)의 생산능력을 확보함. 투자 확대에 따라 현지인을 대거 채용하고, 살타주 기업과 협력하며 지역 사회와 상생하겠다고도 밝힘
- 포스코가 추가 투자를 추진할 수 있던 원동력은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풍부한 매장량과 상업적 가능성에 있음
- 박현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법인장은 “염호 매장량은 1400만 톤(t)으로 추정되며 리튬 농도는 l당 900mg다”라고 밝힘. 통상 리터당 300~600mg의 리튬을 함유하면 채산성이 높다고 평가됨

[\(더구루 2025.6.25\)](#)

2. 엔비디아 올라탄 LS일렉... AI서버 액체냉각 ‘정조준’

- 세계 인공지능(AI) 서버 시장의 90%를 장악한 엔비디아 제품에 LS일렉트릭의 액체냉각용 전력제어 시스템이 들어감
- 23일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세계 최대 액체냉각 솔루션 기업인 버티브에 개폐기와 차단기 등 전력제어 기기를 대량 공급하기로 하고 최종 조건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짐
- 엔비디아의 AI 서버에 버티브 시스템이 들어가는 만큼 LS의 전력기기가 엔비디아 AI 서버에 장착되는 셈임

[\(한국경제 2025.6.23\)](#)

3. SK케미칼, 듀몬트와 재활용 소재 공급 독점 파트너십 협약 체결

- SK케미칼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SK케미칼 본사 에코랩(ECOLAB)에서 듀몬트(Durmont), 파아랑(Paarang)과 독점 파트너십 협약(Exclusive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힘
- 듀몬트는 오스트리아 소재 자동차 카펫 제조회사로, 연간 약 700만대의 차량에 카펫을 공급할 수 있음. 파아랑은 SK케미칼과 듀몬트가 원활한 소통 및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파이낸셜신문 2025.6.25\)](#)

4. DS단석, 中 나라다와 ESS 제조·판매 협력

- DS단석은 중국 리튬인산철(LFP) 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 기업인 나라다와 ESS 관련 제조 및 판매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힘
- 이번 MOU는 국내외 ESS 모듈, 랙, 컨테이너 시스템 제조, 판매 사업 협력 및 부품 소재 공동 기술 개발 등을 골자로 함

[\(전자신문 2025.6.23\)](#)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6.20(금) ~ 2025.6.26(목)

제공일시 2025 7 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英, 북해 석유·가스 사업에 '스코프3' 평가 의무화 지침 발표

- 영국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 승인 시 스코프3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환경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신규 사업뿐 아니라 이미 개발 승인을 받은 석유·가스 프로젝트에도 소급 적용돼, 화석연료 개발 사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침은 정부 승인 단계에서 화석연료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라며, “특히 소비 이후 발생하는 다운스트림 배출까지 포함해 환경영향평가(EIA)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침에 따르면, 개발사는 자사 제품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전 세계 탄소 예산(carbon budget)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함. 이와 함께 다른 프로젝트들과의 누적 배출 효과도 함께 고려돼야 함

- 정부는 구체적인 배출 저감 수단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직접 공기 포집(DAC)이나 대규모 조림과 같은 ‘직접 제거’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음. 반면, 외부에서 구매한 탄소 저감 크레딧은 자사 배출 상쇄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번 조치는 지난해 영국 대법원의 ‘피니치(Finch)’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임. 당시 법원은 개트윅 공항 인근 유전 개발 사업이 스코프3 배출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승인을 무효화했음. 당시 환경운동 단체인 웰드 액션 그룹(Weald Action Group)은 해당 유전에서 발생할 스코프3 배출량이 1000만 톤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음

- 이에 따라 새로운 지침은 정부가 프로젝트 승인 시 탄소 배출의 전 과정, 특히 연소 배출에 따른 기후 영향과 이를 상쇄하기 위한 감축 또는 제거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했음

- 이 지침은 신규 프로젝트뿐 아니라 기존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대표적으로 셸(Shell)의 ‘잭도(Jackdaw)’ 가스전과 에퀴노르(Equinor) 및 이타카에너지(Ithaca Energy)가 공동 추진 중인 ‘로즈뱅크(Rosebank)’ 유전 사업이 이에 해당함

- 두 프로젝트 모두 영국 정부와 북해전환청(NSTA)이 승인한 사업으로, 환경단체 업리프트(Uplift)와 그린피스(Greenpeace)는 지난 1월 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음. 이에 스코틀랜드 법원은 해당 프로젝트가 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지 않은 점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승인을 취소했음. 법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공공의 이익은 개발자의 사익보다 우선된다”며 정부에 재심사를 명령했음

- 이에 따라 두 사업자는 새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최종 승인은 올해 가을 이후로 미뤄질 예정임

- 셸과 이타카 에너지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국가적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개발 의지를 재확인했음. 셸은 “잭도 프로젝트에 8억파운드(약 1조4500억원)를 투자했고, 완공 시 연간 160만 가구에 난방을 공급할 수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음

- 에퀴노르도 “로즈뱅크 유전은 최대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새 지침에 따른 스코프3 평가서를 제출해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즈뱅크는 약 3억5000만 배럴의 석유가 매장된 영국 최대 미개발 유전으로, 현재까지 22억파운드(약 4조원)가 투입됐음

- 에너지부 장관 에드 밀리밴드는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비용 절감과 에너지 안보에 필수”라고 강조하면서도, “석유·가스는 향후 수년간 여전히 경제의 일부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보수당은 “기존 사업에도 제약을 가하는 것은 사실상 전면 중단과 다름없다”며 반발했음. 케미 베이드록 보수당 대표는 “수천 개의 일자리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임팩트온 2025.6.22\)](#)